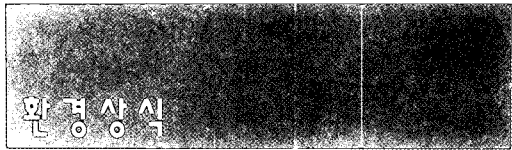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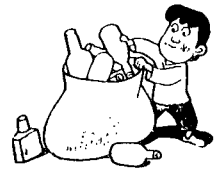


#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 재활용 가능품의 분리수거 요령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지 6개월이 지난 지금 99%의 참여율로 쓰레기발생량이 30~40%정도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적인 제도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재활용품목에 대해 분리수거하는 요령이 부족하여 재활용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품의 분리수거는 발생 폐기물을 감량하는 동시에 자원절약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제대로 분리수거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이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재활용품목 중 종이류, 병류, 캔류, 섬유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등의 보다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수거요령을 알아 보겠습니다.

### 1. 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30cm높이로 묶어 분리수거한다. 그리고 비닐코팅 광고지나 비닐류, 기타오물질이 섞이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 책자, 노트, 봉투, 종이쇼팽백, 달력, 포장지 : 비닐 포장지를 제외하고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한 다음 30cm 높이로 묶는다.
- 종이컵, 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다음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 분리한다.
- 상자류 : 포장상자, 골판지상자 등은 비닐코팅 부분을 제거하고 상자에 부착되어 있는 테이프나 철판을 제거,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는다.
- FAX용지, 사진류, 방수용지 등은 재생이 않됨을 유의해야 한다.

### 2. 병 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다.
- 청색병(사이다병, 소주병 등), 갈색병(맥주병, 음료수병, 약병 등), 무색 투명한 병 등 색깔로 분류한다.
- 재사용병은 맥주, 소주, 청량음료수병 등이며 파우더 및 1회용병(드링크병, 약병, 재털이 등)은 녹여서 재활용하게 된다. 또 농약병은 재생공사에서 수집하여 재생처리함.

### 3. 캔 류

- 철캔, 알루미늄캔 등은 속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가능하면 비닐 봉투에 넣는다.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이나 다른 물질이 있을 때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 부탄가스나 살충제 용기 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분리해야 한다.

### 4. 섬유류

- 의류 : 입을 수 있는 옷은 세탁하여 이웃과 교환하거나 알뜰시장이나 고아원등에 기증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그리고 못입는 옷은 단추, 지퍼 등을 제거한 후 30cm 높이로 묶는다.
- 카페트나 커튼, 기타 섬유류 등의 복합소재의 제품은 따로 분리한다.

### 5. 고철류

- 이 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분리수거한다.

### 6. 플라스틱류

- PET병등과 같은 용기류는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압착하여 부피축소 후 분리한다. 샴푸, 세제 등의 리필제품은 재사용한다. (폐유의 용기류는 제외)
-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해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분리수거한다.

현재 환경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사회환경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환경교육의 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환경교육의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학생들 위주의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대상의 환경교육이 강론식 교육에 그치고 있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와 분리수거, 재활용품사용 등 실생활에서의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종량제뿐만 아니라 분리수거, 재활용품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어 쓰레기를 노천소각하거나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농촌지역의 환경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의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종량제 및 환경전반에 걸쳐 전국의 새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

시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 중앙연수원을 찾았다.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는 지난 '94년 10월 4일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새마을 지도자 15,000명을 대상으로 4박 5일의 연수과정을 통해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재활용의 극대화 등 실천적 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어 환경교육의 새장을 열고 있다.

연수원은 경기도 분당구 표동의 녹음이 짙게 펼쳐진 신수를 주위에 두고 위치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교육장으로서의 그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17년간 새마을 지도자교육과 기업 및 일반인들의 교육장으로 적합한 국내 유일한 곳이다.

지금까지 연수원에서 실시한 새마을 핵심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정신교육으로 새마을운동에 관한 내용에 그치고 일부 자연보호에 관한 내용을 교양교육으로서 실시하여 왔으나 환경부와 내무부 등 정부 및 국민들의 환경보전 노력에 부응하여 환경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교육프로그램은 우선 관계 전문인의 강의를 통해 환경보전의 의의와 사례 발표로 국내환경문제와 쓰레기문제를 인식케 한 다음 VTR상영과 토의를 하므로서 일상생활속에서의 실천방법을 스스로가 모색케 하였다.

교육과정은 환경과 쓰레기 문제의 인식 → 실상파악 → 문제분석 → 대안모색 → 실천계획수립으로 진행하여 지도자 자신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지역주민 지도도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환경전문지식을 습득토록 하였다.

환경과 쓰레기 문제인식 과정에서는 표준 쓰레기 배출량(1가구당 3~4인 재활용률 7.9% 기준)을 소개하고 이를 경제적 손익에 따른 금액으로 산출하여 실생활에서의 쓰레기발생의 문제와 분리수거에 의한 재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새마을 지도자들은 이 과정에서 자기지역의 쓰레기발생량을 대략적으로 재활용했을 때 산출되어 나

## 환경교육 현장을 찾아서

# 실천적 환경교육을 유도하는

# 새마을 운동 중앙연수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수거, 재활용품 등 실생활에서의 실천적 교육이 미흡한 가운데 농촌 지도자 15,0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환경보전 실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 중앙연수원을 소개한다.

오는 이익금액에 놀라움을 보이고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상 파악과정과 문제분석과정에서는 지금까지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와 각 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에 관해 그 양이 얼마나 되며 쓰레기를 버리는 실상을 VTR을 통해 보여 주고 각 지역의 쓰레기 처리 실태에 따른 폐해를 새마을지도자 각자의 서로의 견해와 실례를 발표하여 이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방안모색을 유도해 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문제점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 중 봉투의 크기와 질적인 문제, 분리수거 장소와 수거함의 부족, 동이나 읍에서 수거해 가는 횡수,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따른 분류와 제한, 분리수거 제도와 체계상의 문제, 수거장비의 능력 등 실생활에서의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대안모색과정에서는 분리수거의

방법, 쓰레기 줄이는 방안 등을 지도교수가 반원을 대상으로 종류별 분리수거 요령을 시범과 토의를 거쳐 일상생활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토의하였다.

특히 분리수거요령에서 실제 생활속에서 사용후 쓰레기가 되어지는 것을 가져다 실물을 보고 교육하며 종이류, 섬유류, 캔류, 고철류, 유리병류, 플라스틱류 등 6종류를 각 종류마다 성상별 분류를 하므로서 분리수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플라스틱류의 경우 PETE (1), HDPE(2), V(3), LDPE(4), PP(5), PS(6) 등으로 용기류 표면 및 바닥에 숫자로 표시되어 있어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뚜껑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부피를 축소시켜 배출하고 샴프, 세제 등의 리필 제품은 재사용한다는 것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지도자들 각자의 쓰레기감량 및 분리수거 정착화 방안을 작성하고 세부실천계획

을 지금까지의 교육을 바탕으로 세워 그 중 우수 새마을지도자를 선정, 종합발표를 통해 각자가 자기지역에 가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4박 5일 동안의 일정에서 실시되고 1회 660명이 연수원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분리수거를 함과 동시에 캔압축기를 이용하거나 하여 쓰레기부피 감소등을 실제로 체험함으로써 실생활에 적용케 하였다.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의 송중근 기획홍보실 실장은 이번 계기로 환경부와 내무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의 동장 및 이장등 교육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환경보전에 일조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내무부와 환경부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추진해온 환경살리기 새마을운동을 '95년 중점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예섭 기자)

